올 상반기까지 '高물가' 고통

국제 유가·서비스 요금 인상 영향

광주·전남 물가 상승률 3.3% 전망

국제유가 급등 및 각종 서비스요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광주·전남지역의 물가 상승 추세가 올 상반기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올해 1년간 물가상승폭이 지난해보다 클 것으로 예상돼 '고물가'로 인한 서민들의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지역 2007년 물가동향 및 2008년 전망'에 따르면 올해 광주의 평균 물가상승 전망치는 3.3%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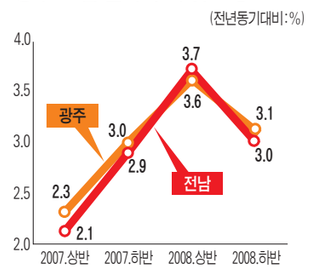
이는 지난해 물가상승률(2.6%)에 비해 0.7%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부터 시작된 물가상승 추세가 올해도 지속될 것임을 의미한다. 전남도 올해 평균 물가 전망치가 3.4%에 달하면서 지난해(2.4%)보다 1.0%포인트나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광주·전남의 올해 물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된 것은 석유류와 밀가루 등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공업제품 및 서비스가격의 동반 상승이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광주·전남은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봉투가격,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가운데 학원비와 대학 납입금 등도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여 물가로 인한 시름이 지난해보다 깊어질 전망이다.

실제 광주의 경우 지난해 국제유가 급등의 여파로 휘발유, 경유 등의 가격이 뛴 데다 도시가스, 교통요금, 학원비 등 공공·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이 잇따랐다.

■ 광주·전남 물가 추이 및 전망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해 '장바구니 물가'인 생활물가가 1년 전에 비해 5.0%나 올랐다. 전남도 지난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이 5.5%p에 달하면서 서민들의 가계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생활물가지수란 식료품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품목으로 구성된 지수로,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의 경제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점쳐지면서 소매유통업종 경기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집값도 하향안정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의 올해 월세와 전세 등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의 영향으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다만 여수·순천 등의 경우 '2012년 세계박람회' 유치 이후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집값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금융권, 건설사 지원

은행연합회 등 TF팀 … 자율협약 마련

채권 만기 1년 연장·신규자금 지원 등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업계의 자율협약 마련이 임박했다.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우량 건설업체의 채권 만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주채권은행 주도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6개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TF)은 지난 14일부터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자율적인 금융지원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한 끝에 조만간 초안을 마무리하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협약 초안에는 재무구조는 양호하지만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회수를 자제하고 이들 업체가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과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 유동화채권의 만기를 1년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주채권은행 주도로 자금 지원에 찬성하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대상 건설업체에 대한 기준은 신용등급 BBB 이상 또는 주채권은행이 선정하는 기업 등의 방안을 놓고 TF 참여 기관들이 논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업권별로 4차례 설명회를 개최한 뒤 다음달 말까지 협약을 시행할 예정지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자율 협약에 포함돼 협약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2금융권의 참여에 대해 질의한 결과 21개 회원은행의 절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110여개 저축은행 등에 공문을 보내 동의 여부를 질의할 계획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에어컨 미리 장만 하세요" 광주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14일부터 오는 3월까지 에어컨 예약판매를 실시하면서 모델에 따라 포인트 적립, 사은품 증정 등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 새얼굴

"우량 中企 '돈 가뭄' 해결 지원"

고 일 영 企銀 호남지역본부장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겠습니다."

신임 고일영(54) 기업은행 호남지역본부장은 22일 "그동안 기업은행은 광주·전남 중소기업의 친구이자 동반자의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앞으로도 상생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최근 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지원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 본부장은 전주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7년 기업은행에 입행했으며, 정읍지점장, 종합기획부장, 북부지역본부장 등 요직을 거쳤다.

/최경호기자 choice@

"광산업·농수산물 수출 마케팅 강화 노력"

수출보험공사 조환익 사장 지역업체 CEO 특강

"광주·전남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산업 및 농수산물 수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조환익 사장은 21일 광주·전남지역 수출업체 CEO들을 대상으로 한 '세계 경제 트렌드와 대외 진출전략'이란 특강에서 "광주·전남은 취약한 제조업 기반에도 불구하고 대외 수출 부분에 있어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사장은 "광주·전남은 광산업과 농수산물 등 향후 수출 유망품목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며 "지역 업체들의 브랜드 및 마케팅 강화 노력과 수출보험공사의 각종 지원책이 맞물린다면 단기간에도 획기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사장은 "전남의 경우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수출에 대한 필요성이 그 어느때 보다 높다"며 "올해 도입 예정인 '농수산물 패키지 보험'을 활용할 경우 선적 전 금융 및 수입자 리스크, 환율 변동위험 등 수출과 관련한 각종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사장은 또 "상품 제조업과 돈(금융)을 함께 수출하는 것이 제품만을 수출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다"며 "돈 수출은 국내 유동자금의 해외사업 투자를 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기법으로, 향후 수출보험공사의 중점적인 공략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수출보험공사는 조 사장의 이같은 신념에 따라 최근 선박금융 등 대형 프로젝트 금융사업에 의욕적으로 진출한 데 힘입어 지난해 1천133억원의 순익을 거뒀다. 이는 2006년(120억원)에 비해 순익 규모가 9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2004년 첫 흑자전환 이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영난 허덕 미곡처리장 활성화 모색"

광주·전남지역본부 방문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개방시대를 맞아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농촌과 농협을 위해 원칙과 규정에 맞춰 무이자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고, 특히 경영이 어려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취임 후 22일 처음 광주를 방문한 최 회장은 광주와 전남지역본부로부터 올해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관내 조합장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최 회장은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중앙본부에 '회원농협 종합지원본부'를 신설,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농협의 정체성에 위배되거나 전망이 불투명한 사업과 조직은 과감히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 회장은 쌀산업을 반드시 지키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DSC(건조저장시설) 확충과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RPC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올해 출범하는 'NH식품'의 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회원조합의 가공식품 전문판매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용사업과 관련, 최 회장은 농협의 사업과 농업인의 실익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중앙본부에 '상호금융 대표이사제'를 도입하고, 펀드·외환·신탁 등 업무영역을 은행권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조직과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농협은 ▲대형판매장 신설·통합 ▲RPC 사업기반 조기정착 ▲상호금융 예수금 3조 8천억원, 대출금 3조 4천억원 달성을 통한 경영내실화 등을 올 사업계획으로 보고했다. 또 전남농협은 ▲전남쌀 평생고객 150만명 확보 ▲시장지향적 농축산물 마케팅 강화 ▲농가소득원 확충과 농촌 복지사업 추진 등을 보고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광주·전남 어음부도율 하락

12월 1.0% … 전달보다 0.06%P 내려

부도업체 수 감소·신설법인 수 286곳

지난해 11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광주·전남지역의 어음부도율이 한 달 만에 소폭 하락세로 돌아섰다.

21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주·전남의 어음부도율은 1.00%로 나타났다. 이는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11월(1.06%)보다 0.06%포인트 하락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말 지역 건설업체들의 부도 여파로 인해 1%대의 높은 부도율은 지속됐다.

지역별 부도율은 광주가 1.30%로 전월에 비해 0.29%포인트 하락했고 전남은 0.5%로 0.25%포인트 상승했다. 12월 신규 부도 업체 수는 15개로 전월보다 9개 감소했고 신설법인 수는 286개로 25개 줄었다.

한편 지난해 신설법인 수는 전년(2천504개)보다 688개 늘어난 3천192개로 집계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